https://doi.org/10.5392/JKCA.2019.19.12.483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유민[*], 이의연[**], 전정호[***], 이종민[**]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단국대학교 경영학[**],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Min Liu(liumin@glmc.edu.cn)[*], Yi-Ran Li(liyiran8986@naver.com)[**], Jeong-Ho Jeon(edjohn90@dankook.ac.kr)[***], Jong-Min Lee(jong7min8@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대학교 재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하는 데에 있어서 심리적 부담과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5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정서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학업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성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상호 협력관계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은 사회교환이론에 의해 규명되어진다는 점을 밝히는데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학교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고 상호 협력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중심어 : | 대학생 | 외국인 유학생 | 사회적 자본 | 심리적 안녕감 | 대학교 생활적응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university students' social capital, examines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capital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mpus life adjustment, and analyzes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Data were gathered from 205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showed firstly that university students' social capital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sonal adjustment. Secondly, social capital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djustment. Thirdly,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social adjustment. Finally,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ampus life adjustment.

This study is unique in that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ampus life adjustment. In addition, theoretical implications can be found in examining the process of mutual cooperation among students and revealing that they are identified by the theory of social exchange. Practically, the study shows that active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social capital and create a cooperative environment at the school level.

■ keyword : | University Students | Foreign Students | Social Capital | Psychological Well-being | Campus Life Adjustment |

접수일자 : 2019년 11월 07일
수정일자 : 2019년 11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9년 11월 30일
교신저자 : 전정호, e-mail : edjohn90@dankook.ac.kr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 흐름이 촉진되면서 국가와 지역, 개인의 영역을 초월한 통합된 글로벌 경제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약화시켰으며, 우리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호 간의 활발한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이에 따라,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한국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해마다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체류 중 외국인 학생수가 6만 명을 넘어서면서 2019년 11만 명(111,858)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 이와 같이, 대학 사회의 소통과 사고방식은 이미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학생들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관계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국가와 인종으로 학교의 국제화 및 다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 간의 가치관이나 태도,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은 우리 대학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에 동화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학업성취도 저하나 생활 부적응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할수록 학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학들은 유학생의 양적인 증가 추이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학생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평판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주변 국가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경우,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해당 국가의 발전을 선도할 고급인재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통상적으로 유학생을 통해 국가의 문화수준과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이 자연스럽게 타국으로 전파되어진다. 그러므로 국가 경제력과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 및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적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은 해외의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이들의 학업수준을 끌어 올려 유학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들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생활적응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유학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점점 더 증가하는 유학생들로 인해 다국적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게 되는 국내 대학교들은 유학생들과 국내 대학생들의 화합, 배려, 소통을 향상시키는 데 구체적 대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학생을 비롯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학교 생활적응을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인지,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학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사회적 자본으로 인한 긍정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증대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2],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교 생활적응[3][4],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개별적으로는 탐구하고 있으나,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대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동시에 연구하여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변수가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 사이에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심리적 안녕감을 효과적으로 증가하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대학교 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을 관리하는 방안이 사

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교 생활적응

대학교 재학과정은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바른 성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대학교 생활은 개인이 장래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학습하고 축적하는 시기며, 개인의 일생동안 제일 커다란 변화과정을 경험하는 중요한 적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5]. 이 과정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되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로써,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에 대해 스스로 주어지는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면서 사회 초년생으로 다양한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학생들은 과거 청소년 시절과는 달리,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계획을 수립하고, 취업 준비 및 인생설계를 위한 중요한 선택까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불확실한 상황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대학교 시절에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적응능력이 요구되어진다.

적응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녕감을 저해하는 다양한 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라 대응해 나가거나 이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즉, 개인과 환경이 조화로운 일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본인의 자아와 환경의 자아가 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9].

또한 인간은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예를 들어, Robbins & Judge[29]는 인간의 성격과 환경적응력이 30% 정도는 유전이지만, 70% 정도는 환경에 의해 변화되고 적응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적응을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화하여,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자연선택이론에 따르면, 진화는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좌우되는 상대적인 기준이 있을 뿐이며, 환경에 적응된 개체만 생존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기본전제로 한다[8].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학생은 학교의 학습생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행동패턴을 추종한다. 왜냐하면, 환경에 유리한 변이 및 적응만 자연에서 살아남듯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발현함으로써 학교 환경에 본인들을 적합하게 위치시켜 학교에서의 적응력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교 생활적응에 대해 Baker & Siryk[9]는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의 4 가지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교 생활적응은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상대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의 정도를 측정고자 한다.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28]는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감을 탐색하고 확립하는 학생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과도 연결되고, 직업을 결정하며 학생의 역할에서 성인 및 사회인의 역할로 옮겨가야 하는 중요한 성장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새로운 대학환경이나 글로벌 및 다양성으로 인해 증가된 유학생들과 화합, 배려, 소통 등 문제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실증연구에서 Credé & Niehorster [16]는 비교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문구조와 학문적 요구, 새로운 관계와 사회적 활동의 참여는 학생들에게 도전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학업실패, 학업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냈다. 따라서 사회학적·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학교 생활적응은 개인이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학교, 교수, 학우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즉 대학교 생활적응은 학생들이 주어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응되고 살아남기 위해 학교, 교수, 학우들의 물리적·사회적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상황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및 혼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대학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적응능력은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써, 항상 중요시 고려되어져 왔지만,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향후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의 시발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

다양성과 세계화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도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이 상호작용하며 학교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원활한 관계형성 및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학생들 간의 상호 관계 및 작용은 학업성취도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임의로 결성된 가상의 관계망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동일시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무형의 자본이다[41]. 이러한 의미에서 Wells[39]는 높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학생들이 낮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학생들보다 학습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교수, 학우, 학과 친구들과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수록 학업에 동기 부여되고, 결국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를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구조적 과점으로 Van Den Hooff & Huysman[38]는 구조적 자본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에 속해 있는 학생들 간에 공동체를 유지하여 가상의 사회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정의하였다[23]. 즉, Van Den Hooff & Huysman[38]의 사회적 자본은 타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교감을 나누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둘째, 인지적 관점으로 Robinson[30], Tsai & Ghoshal[42]는 인지적 자본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공동의 목표나 열망에 따라 조직 내에서 공유된 비전을 인지적 사회적 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Tsai & Ghoshal[42]의 사회적 자본은 학생들 간의 결속력을 증가시켜 학습 공동체로써의 응집력을 키우며, 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관계적 관점으로 Fukuyama[18]는 관계적 자본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를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었는데, 그는 신뢰를 어떤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즉, Fukuyama[18]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사회적 자본은 기존의 금융 자본, 물적 자본, 인적 자본과 달리 형성된 자본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증감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관계적 관점의 사회적 자본은 신뢰나 호혜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순환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Nahapiet & Ghoshal[23], 이의연[41]은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제안하여,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관점의 근본적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Nahapiet & Ghoshal[23], 이의연[41]의 통합적 관점은 구조적 관점이 가지는 공유가치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관계적 관점이 결여하고 있는 네트워크 발전·확장에 대한 무관심을 동시에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통합적 관점을 채택하고자 한다. Nahapiet & Ghoshal[23], 이의연[41]은 사회적 자본의 각각의 관점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 구조적 자본이 인지적 자본이나 관계적 자본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본의 증가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인지적 자본이나 관계적 자본의 사회적 자본의 증가가 구조적 관점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기도 한다고 하였

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관점들이 상호 인과관계 및 순환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적 관점의 사회적 자본이 증가될수록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사회적 지지가 형성되고 심리적·신체적 안정감을 가지며, 학교, 교수, 학우에게 호의를 가지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되기 쉽다.

3. 심리적 안녕감

행복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추구하는 심리적 안녕감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받게 될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나 안녕감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을 극복·제거하고자 한다. 심리적 안녕감은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행복지수를 높여준다[10].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졸업 후 진로결정을 못한 상태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고,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나 대학교 생활 부적응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 결국 낮아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궁극적으로 학교에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적응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우수학생 확보 및 유지를 고려한다면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통제,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측면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34]. 또한 학교의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적응을 하도록 만드는 학생들의 안녕감이 요구된다[19]. 이러한 안녕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근거하기 때문에, 대학교의 생활적응 측면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학생과 학교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이 자신의 학교 생활적응의 정도를 의미하는데[2],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학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갖고 있는 학생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 적응되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의사가 더 강하다. 둘째, 학업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학교생활과 학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3][40]. 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성취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통제,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은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심리적 안녕감이 학생들의 학업과 대학교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가진 학생들은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대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나 행복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제공해준다.

Ⅲ. 가설 설정

1.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

사회적 자본은 학생 본인이 다른 학생들과의 호혜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자본이다[12][27].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호 연결성 측면에서 학생들 간의 협력적 관계가 요구되는데, 이는 사회교환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학생 자신이 보유한 지식이나 역량,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각종 자본을 다른 학생들과 교환 또는 공유함으로써 그 효용가치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교환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관계망이 사회적 자본이 유지되는 인프라가 된다[39][41].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금융 자본이나 물적 자본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41]. 이는 단기적으로 상호 필요성이나 교환의 효용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학교 학생들 간에 형성되는 호혜성과 지지나 신뢰 등이 기초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은 장기간 형성된 학생들 간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협력적 관계를 통해 축적되며 강화된다.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축적된 호혜적 관계, 신뢰는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언젠가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과 지지를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17]. 이와 같은 기대는 확신으로 전환되며 이것이 지속될수록 학교 내 학생들의 호혜적 관계는 더욱 강화된다[38].

이렇게 형성된 강한 학생들의 호혜적 관계는 학생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킨다. 이는 지식이나 정보의 적극적 교환을 촉진시켜 학생들의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원활하게 도와준다[49]. 또한 학생의 학업 공동목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문화적 거리를 감소시켜 관계를 강화시켜 준다[6]. 따라서 대학교 생활에서는 학생들 간의, 학생과 교수 간에 높은 신뢰도가 형성되므로 상호 간의 지식공유, 학업을 위한 대학교의 생활적응을 촉진시키게 된다[4].

실증연구에서 Carter-Francique, Hart & Cheeks [12]는 사회적 자본이 높은 학생들은 적극적 태도로 지식습득 및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내재적 학습동기가 강해 창의력을 발휘하는 학습을 선호했으며,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적응된다고 밝혀냈다. Ream & Rumberger[27]도 사회적 자본은 소수민족 학생들의 중퇴를 방지하고, 다른 학생과 우정을 쌓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Jenkins, Belanger, Connally, Boals & Durón[20]은 사회적 자본이 높은 학생들이 미래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방지하고 삶의 만족도 및 대학교 생활에 적응력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가진 학생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안을 찾거나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가져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므로, 이를 위해 대학교 생활에 적응하려는 마음을 가진다[37]. 구체적으로 첫째,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팀 과제나 팀 세미나를 진행할 때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인-정서적 적응이 안정화된다[15]. 둘째, 높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학생들은 학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게 되므로 미래진로를 결정하기 쉬워진다. 뿐만 아니라 학업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대학교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켜 학업적 적응이 강화된다[24]. 셋째, 상호협력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선·후배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이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원만한 인관관계를 유지·강화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이 향상된다[15][24][3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대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수준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생들보다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사회적 자본은 학생들의 학업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사회적 자본이 개인-정서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사회적 자본이 학업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은 학생들이 도전적 목표달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정체성을 형성·확립하며, 대학생으로서의 학업을 완성하거나 미래진로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서이다[7]. 이러한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통제,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으로 인한 심리적 안녕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서에 기인하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심리적 안녕감은 타인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하고 증진되는 학생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이다[13]. 또한 학생과 학교, 학우 사이의 연결고리로써, 학생과 학교, 학우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학습동기, 지식공유의도, 학습전이 등과 같은 정서변수와 지식공유 활동과 같은 행동변

수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학교의 국제화 목표달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도구적인 가치나 기능적인 목적보다는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개발하며, 다른 학우들과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삶의 목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한다[19].

실증연구에서 Havighurst[43]도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상호 협력관계에 좌우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Nieminen, Martelin, Koskinen, Aro, Alanen & Hyyppä[24]는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을 증대시킨다고 밝혀냈다. Nabi, Prestin & So[22]도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질이 좋아지고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며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체적 질환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높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우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지원이 학교 내 전체 학생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지원으로 전이된다.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 Cicognani, Pirini, Keyes, Joshanloo, Rostami & Nosratabadi[14]는 사회적 참여, 공동체 인식을 강화시키고 학생들이 서로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의 촉진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현재의 국내 대학교에 적용시켜보면, 다양해진 대학교 학생들 간에 화합, 배려, 소통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자본이 증가될수록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정서로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을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정서라는 관점에서 접근함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파악하였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얼마만큼 잘 기능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심리적 개념으로써, 대인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만족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2.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은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도전의식이나 학업의 목표 가치를 향상시킨다[2]. 심리적 안녕감은 특히 학생들의 심리적·신체적 상태에 의해 발생하는데, 안정적 심리상태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다[24]. 심리적 안녕감은 학생이 자신을 다른 학우들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점에서 대학교 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심리적 안녕감이 약해지고,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대학교 생활적응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식·정보공유가 원활하기 때문에 팀 과제나 상호협력이 원활하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정서적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대학교 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보여준다.

이명숙·최효식·연은모[2]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도전의식, 학업성취도, 대학교 생활적응이 높아지고 중도 학업포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해외 연구에서도 대학교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k[36]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utledge, Ostafin, Juhl, Sedikides, Cathey & Liao[31]는 안녕감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인관계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Iyer & Jetten[20]은 심리적 안녕감이 도전의식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자아와 학교의 자아를 일치시키며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확인하였다. 즉, 학생들은 학

교생활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게 되면, 불쾌한 일이나 감정에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감소시키고자 학교생활에 적응한다.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교 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 간의 심리적 안녕감이 확산되면, 다른 학우들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10]. 이와 같은 긍정적 관계는 개인적 정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학교 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게 된다[31][36]. Guo, Li & Ito[46]에 따르면,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가진 학생들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학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가 증가되기 때문에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이 강화된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교 생활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의 환경 속에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심리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교 생활적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개인-정서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사회적 자본,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 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통제,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의 심리상태를 일으키는 심리적 안녕감이 중요하다[31].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대학교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학교 생활의 적응력을 높인다. 따라서 학생들 간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관계를 넓히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7][13], 학우들과 적극적인 교환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교환관계 형성은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소통과 협력을 촉진시켜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낸다[47].

이렇게 형성된 심리적 안녕감의 향상은 대학교 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게 된다[15][43]. 따라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다는 의미는 이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과 긍정적이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고, 본인들의 행동을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관리 및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주변 환경 및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및 방향성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며, 본인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고, 본인의 대학시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적 성장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4.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4-1.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과 개인-정서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4-2.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과 학업적 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4-3.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Ⅳ. 실증 분석

1. 연구대상

10개의 대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19년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300부를 배포하여 260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 응답이 불성실한 55부를 제외한 후 205부가 최종적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본의 분포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대학교로 이루어졌다.

성별로는 남성이 90명(43.9%), 여성이 115명(56.1%)으로 분석되었고, 학년은 1학년이 37명(18.0%), 2학년이 40명(19.5%), 3학년이 50명(24.4%), 4학년이 78명(38.0%)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182명(88.8%), 자연계열 11(5.4%), 예체능계열 11명(5.4%), 의학계열 1명(0.5%)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아리 가입유무는 유 71명(34.6%), 무 134명(65.4%)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40명(19.5%), 통학이 113명(55.1%), 자취가 49명(23.9%), 하숙 3명(1.5%)으로 나타났다.

2. 분석방법 및 측정도구

2.1.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측정모형,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3.0, Amos 24.0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에, 내적 일관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본 연구표본의 모든 변수는 단일원천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사후검증을 하기 위하여 단일요인 검증법(Harman's One Factor Test)을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을 분석하고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서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측정도구

1) 사회적 자본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Macke, Vallejos & Toss[21]의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이의연[41]이 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21개 사회적 자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사회적 자본은 “나는 대체적으로 학우들과 매우 좋은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와 “내가 깊은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는 학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모두 0.7이 넘는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적 자본 7개 문항, 인지적 자본 7개 문항, 관계적 자본 7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했으며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다]에 의해 측정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하위차원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통합적 관점에서 대학교 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41].

2)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는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yff[33]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수용 3개 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4개 문항, 자율성 4개 문항, 환경통제 4개 문항, 삶의 목적 4개 문항, 개인적 성장 6개 문항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Ryff[33]의 연구에서 0.7이 넘는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나는 내적 동기에 의해 내 행동을 조절한다”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다] 및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통합적 관점에서 그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3) 대학교 생활적응

본 연구는 대학교 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Baker & Siryk[9]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서적 적응 13개 문항, 학업적 적응 7개 문항, 사회적 적응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Baker & Siryk[9]의 연구에서 0.7이 넘는 신뢰도를 보여주는 측정항목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대학교 생활적응은 "요즘 내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낀다"와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과제를 수행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다] 및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신뢰성

신뢰성의 Cronbach's Alpha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측정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측정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44].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변수의 신뢰성 검증결과는 [표 1]과 같다. 독립변수로 활용된 사회적 자본인 구조적 자본 7개 문항, 인지적 자본의 7개 문항, 관계적 자본의 7개 문항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구조적 자본의 4번 문항, 인지적 자본의 10, 14번 문항, 관계적 자본의 18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자본의 Cronbach's Alpha 값은 α=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로 활용된 심리적 안녕감인 자아수용 3개 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4개 문항, 자율성 4개 문항, 환경통제 4개 문항, 삶의 목적 4개 문항, 개인적 성장 6개 문항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대인관계 7번 문항, 환경통제 15번 문항, 개인적 성장 22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 안녕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α=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활용된 대학교 생활적응인 개인-정서적 적응 13개 문항, 학업적 적응 7개 문항, 사회적 적응 5개 문항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서적 적응 4번, 7번, 10번, 11번, 12번, 13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 생활적응의 Cronbach's Alpha 값은 α=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측정문항들의 Cronbach's Alpha 값은 최저 0.680에서 최고 0.919의 값을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표 1. 신뢰성 분석

변수		항목수	Cronbach's Alpha		제거문항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7	0.945	0.919	4번
	인지적 자본	7		0.856	10, 14번
	관계적 자본	7		0.895	18번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3	0.933	0.798	없음
	긍정적 대인관계	4		0.776	7번
	자율성	4		0.758	없음
	환경통제	4		0.780	15번
	삶의 목적	4		0.887	없음
	개인적 성장	6		0.904	22번
대학교 생활적응	개인 정서적응	13	0.885	0.857	4,7,10 -13번
	학업적 적응	7		0.680	14,17-20번
	사회적 적응	5		0.902	없음

4.2. 타당성

본 연구는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Harman's One Factor Test의 단일요인 검증법을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요인을 1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체 분산의 27.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모든 관측변수를 하나의 잠재요인으로 설정한 모형은 측정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x^2=1419.862, Df=252, CMIN/DF=5.634, GFI=.544, AGFI=.457, CFI=.579, NFI=.534, IFI=.583, TLI=.538, RMSEA=.151, RMR=.151).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는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25].

측정문항들이 잠재변수를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중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인 구조적 자본의 4번 문항, 인지적 자본의 10, 14번 문항, 관계적 자본 18번 문항과 심리적 안녕감인 긍정적 대인관계의 7번 문항, 환경통제의 15번 문항, 개인적 성장의 22번 문항, 대학교 생활적응인 개인 정서적 적응의 4번, 7번, 10번, 11번, 12번, 13번, 학업적

적응의 14번, 17번, 18번, 19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자본, 심리적 안녕감, 대학교 생활적응 문항의 표준화계수가 모두 0.500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관측항목별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65]. 집중타당성 역시 설문 문항의 표준화계수가 0.50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충족되었다. [표 2]에서 집중타당성 분석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x^2=504.567, Df=241, CMIN/DF=2.094, GFI=.829, AGFI=.787, CFI=.905, NFI=.835, IFI=.906, TLI=.891, RMSEA=.073, RMR=.062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개념들의 신뢰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신뢰성 판단은 Fornell & Larcker[26]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합성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 CR)을 이용하였다. AVE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한 값들의 합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의 합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45]. 개념신뢰도 또는 합성신뢰도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0.500 이상이고 합성신뢰도가 0.700 이상이면 신뢰성 조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6].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은 모두 0.5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합성신뢰도는 모두 0.800 이상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신뢰성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5].

4.3.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 심리적 안녕감, 대학교 생활적응(개인-정서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모든 구성개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안녕감(r=.526), 개인-정서적 적응(r=.251), 학업적 적응(r=.170)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적응(r=.670)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과 개인-

표 2. 집중타당성 분석

변수		Estimate	S.E.	C.R.	P	β	AVE	합성신뢰도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1.000	-	-	-	0.896	0.947	0.981
	인지적 자본	0.723	0.060	11.970	***	0.719		
	관계적 자본	0.868	0.056	15.616	***	0.861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0.800	0.065	12.346	***	0.725	0.920	0.986
	긍정적 대인관계	0.659	0.066	10.051	***	0.628		
	자율성	0.720	0.059	12.224	***	0.720		
	환경통제	0.819	0.062	13.152	***	0.755		
	삶의 목적	1.000	-	-	-	0.880		
	개인적 성장	0.966	0.056	17.22	***	0.881		
개인 정서적응	생활적응2	1.016	0.114	8.917	***	0.768	0.824	0.970
	생활적응3	0.861	0.115	7.498	***	0.616		
	생활적응5	0.844	0.111	7.639	***	0.630		
	생활적응6	1.000	-	-	-	0.650		
	생활적응8	0.842	0.090	9.317	***	0.591		
	생활적응9	0.954	0.124	7.701	***	0.636		
	생활적응1	1.113	0.123	9.077	***	0.789		
학업적 적응	생활적응15	0.813	0.123	6.595	***	0.585	0.854	0.945
	생활적응16	1.000	-	-	-	0.815		
	생활적응20	0.684	0.105	6.506	***	0.573		
사회적 적응	생활적응21	1.000	-	-	-	0.823	0.922	0.983
	생활적응22	0.860	0.064	13.522	***	0.816		
	생활적응23	0.896	0.066	13.474	***	0.814		
	생활적응24	0.911	0.074	12.372	***	0.766		
	생활적응25	0.960	0.071	13.556	***	0.818		

x^2=504.567, Df=241, CMIN/DF=2.094, GFI=.829, AGFI=.787, CFI=.905, NFI=.835, IFI=.906, TLI=.891, RMSEA=.073, RMR=.062

표 3.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변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자본	심리적 안녕감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사회적 자본	3.5023	.75119	(.947)				
심리적 안녕감	3.6479	.60442	.526**	(.920)			
개인-정서적 적응	3.0815	.87517	.251**	.419**	(.824)		
학업적 적응	3.2163	.82734	.170*	.447**	.232**	(.854)	
사회적 적응	3.7590	.85238	.679**	.602**	.320**	.282**	(.922)

주: 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2. 대각선으로 괄호 안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분산추출지수(AVE)값임.
3. 대각선 아래는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임.

정서적 적응(r=.419), 학업적 적응(r=.447), 사회적 적응(r=.602)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은 Fornell & Larcker[26]의 방법에 따라,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하였으며[26],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45].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 간의 상관계수 중 가장 큰 값은 0.679(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적응)이며, 이것의 제곱인 결정계수는 0.461(0.679 x 0.679)인데 비해 가장 작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0.824로 0.461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45].

4.4. 가설검증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1은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결과, 첫째, 사회적 자본이 개인-정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1-1은 기각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1-2는 기각되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3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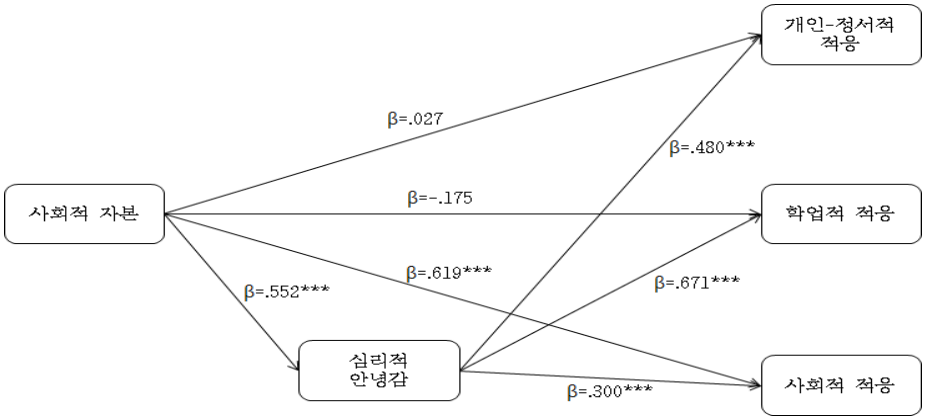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설2는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결과,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가설3은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결과, 첫째, 심리적 안녕감이 개인-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1은 채택되었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2는 채택되었다. 셋째, 심리적 안녕감이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3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가설3은 채택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과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을 매개한다는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의 바이어스 수정법(Bias-Corrected Method)을 사용하여 5,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추정하였다. Bias-Corrected의 접근법은 부트스트랩 추정치의 비대칭성을 더욱 엄밀하게 반영해서 신뢰구간(현대적 통계추정법)의 상한과 하한을 통해서 매개모형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방법이다[45]. 부트스트래핑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95% 신뢰구간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45].

매개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므로 가설4는 채택되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이 개인-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총효과(β=.292) 중, 직접효과는 β=.027이고, 간접효과는 β=.264로 나타나 가설4-1은 채택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총효과(β=.545) 중, 직접효과는 β=-.175이고, 간접효과는 β=.370으로 나타나 가설4-2는 채택되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총효과(β=.785) 중,

표 4. 구조모델 분석

경로			Estimate	S.E.	C.R.	P	표준화계수
사회적 자본	→	개인-정서적 적응	0.028	0.095	0.296	0.767	0.027
사회적 자본	→	학업적 적응	-0.148	0.081	-1.818	0.069	-0.175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적응	0.669	0.080	8.346	***	0.619
사회적 자본	→	심리적 안녕감	0.378	0.054	6.990	***	0.552
심리적 안녕감	→	개인-정서적 적응	0.743	0.152	4.897	***	0.480
심리적 안녕감	→	학업적 적응	0.826	0.159	5.192	***	0.671
심리적 안녕감	→	사회적 적응	0.474	0.107	4.418	***	0.300
매개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하한선	상한선
사회적 자본→심리적 안녕감→개인-정서적 적응			0.264	0.027	0.292	0.167	0.378
사회적 자본→심리적 안녕감→학업적 적응			0.370	-0.175	0.545	0.216	0.542
사회적 자본→심리적 안녕감→사회적 적응			0.165	0.619	0.785	0.098	0.265



x^2=506.423, df=244, CMIN/DF=2.076, GFI=.829, AGFI=.790, CFI=.905, NFI=.834, IFI=.906, TLI=.893, RMSEA=.073, RMR=.063

직접효과는 β=.619이고, 간접효과는 β=.165로 나타나 가설4-3은 채택되었다.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학교 생활적응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와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확장된 견해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학생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개인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거친다는 강성춘·배종훈[48]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 간의 사회적 자본이 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적응을 이끌어내는 필요조건이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적응을 이끌어내는 데 심리적 안녕감이 충분조건임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과 개인-정서적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과 학업적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에 대한 높은 성취도를 가지게 되며 심리적 안녕감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대학교 생활적응을 하게 될 것이라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교환이론에 기인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관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구흐름을 확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에 관련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 개념을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확장시켰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예상과 달리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인-정서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보면, 사회적 자본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개인정서와 학업이 적응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개인-정서적 적응에 영향력(β=.027, p>0.05)을 나타내며 기각되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직접적으로 개인-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학업적 적응에 영향력(β=-.175, p>0.05)을 나타내며 기각되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직접적으로 학업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사회적 자본을 높게 지각하게 되면,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게 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인정서, 학업적, 사회적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이는 사회교환이론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며 대학교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학생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학업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학생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생활을 위해 자발적인 적응을 하게 만든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업성취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적 변화에 관계없이 본연의 행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활발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활용은 학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녕감을 가지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학교생활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얻기 위해 학생은 사회적 자본의 역량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에 효

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중요한 메커니즘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존에 규명된 사회교환이론을 토대로 설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은 학생들의 행동을 발현시키는 주요한 원인요인으로써 이러한 안녕감을 지속시키고 학생의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즉, 지속적으로 받게 될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나 안녕감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을 극복·제거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이며,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학생들은 대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이 사회적 자본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상호 협력관계, 지식공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외에도 다양한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에 따른 영향력은 학생들의 내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학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통제,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을 바탕으로 대학교 생활에 적극적인 적응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론화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대학교 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구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리 및 활용해야 한다. 이에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을 성공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학교의 내·외부적인 환경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학습 환경을 개선하거나 학습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환경통제, 자아수용 등의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심리적·신체적 안정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자기개발하며, 학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적절한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교 생활적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습 및 교육은 학생들의 상호 협력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강화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실행되어야 한다. 학습과 관련된 성취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위한 정서적 함양 교육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학교 내 지식공유나 협업을 위한 코칭 및 상호 협력관계 강화제도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적응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높은 시기이다. 본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수동적인 주입식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의 진로와 인생설계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 흥미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대학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갈등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취업목표 달성을 위한 압박감으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학업, 취업문제, 인생설계 등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에서,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

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인 대학생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적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관점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학교 내에서 이러한 상호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강화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실행,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생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긍정적 상호 협력관계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연구

본 연구는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적응을 향상시키거나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시점의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분석하는 횡단적 연구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시점을 달리하는 종단적 연구를 면밀히 설계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한 설문지로 구성하여 측정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한계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요인 검증법을 거쳐서 검증하였지만, 동일원천으로부터 수집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응답원천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종속변수인 대학교 생활적응의 측정의 한계점이다. 개인의 지각이나 인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확증편향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즉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상관리 동기나 인위적으로 결과를 조작하고 진실성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학교 생활적응을 더 객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 2019.

[2] 이명숙, 최효식, 연은모,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5요인에 기초한 잠재적 성격 특성 유형과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0, No.3, pp.71-81, 2019.

[3] 고영남,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안녕감 (well-being) 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Vol.18, No.3, pp.49-71, 2012.

[4] 김정헌, *대학의 사회적 자본이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5]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cademic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Vol.25, pp.459-464, 1984.

[6] 김태선, 김천기, "교육부문에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12, No.1, pp.97-121, 2007.

[7] 부정민, 강대옥, 강은희, "대학생의 대인관계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방어기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Vol.17, No.3, pp.295-318, 2016.

[8] 장대익, *종의 기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9.

[9]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No.2, pp.179-189, 1984.

[10] K. W. Brown and R. M. Ryan, "The benefits of being present: 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4, No.4, pp.822-848, 2003.

[11] C. Fornell and D. F. Larcker,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3, pp.382-388, 1981.

[12] A. R. Carter-Francique, A. Hart, and G. Cheeks, "Examining the value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for Black student-athletes' academic success," Journal of African American Studies, Vol.19, No.2, pp.157-177, 2015.

[13] E. C. Chang, "Perfectionism and dimens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college student sample: A test of a stress-mediation model,"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25, No.9, pp.1001-1022, 2006.

[14] E. Cicognani, C. Pirini, C. Keyes, M. Joshanloo, R. Rostami, and M. Nosratabadi, "Social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well being: A study on American, Italian and Iranian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89, No.1, pp.97-112, 2008.

[15] E. Cicognani, C. Pirini, C. Keyes, M. Joshanloo, R. Rostami, and M. Nosratabadi, "Social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well being: A study on American, Italian and Iranian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89, No.1, pp.97-112, 2008.

[16] M. Credé and S. Niehorster, "Adjustment to college as measured by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 quantitative review of its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correlates and consequenc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24, No.1, pp.133-165, 2012.

[17] R. M. Emerson,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 No.1, pp.335-362, 1976.

[18] F. Fukuyama, *Trust: The Social Val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19] S. A. Hardy, S. W. Francis, B. L. Zamboanga, S. Y. Kim, S. G. Anderson, and L. F. Forthun, "The roles of identity formation and moral identity in college student mental health, health risk behaviors,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69, No.4, pp.364-382, 2013.

[20] A. Iyer and J. Jetten, "What's left behind: Identity continuity moderates the effect of nostalgia on well-being and life cho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01, No.1, pp.94-108, 2011.

[20] S. R. Jenkins, A. Belanger, M. L. Connally, A. Boals, and K. M. Durón, "First-generation undergraduate students'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Vol.16, No.2, pp.129-142, 2013.

[21] J. Macke, R. V. Vallejos, and E. D. Toss, "Building inter-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instruments to evaluate collaborative networks," iBusiness, Vol.2, No.1, pp.67-71, 2010.

[22] R. L. Nabi, A. Prestin, and J. So, "Facebook friends with (health) benefits? Exploring social network site use and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stress, and well-being,"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6, No.10, pp.721-727, 2013.

[23] J. Nahapiet and S. Ghoshal,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2, pp.242-266, 1998.

[24] T. Nieminen, T. Martelin, S. Koskinen, H. Aro, E. Alanen, and M. T. Hyyppä, "Social capital as a determinant of self-rated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Vol.55, No.6, pp.531-542, 2010.

[25] P. M. Podsakoff and D. W. Organ,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Vol.12, No.4, pp.531-544, 1986.

[26] C. Fornell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27] R. K. Ream and R. W. Rumberger, "Student engagement, peer social capital, and school dropout among Mexican American and

non-Latino white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Vol.81, No.2, pp.109-139, 2008.

[28] K. G. Rice, D. P. FitzGerald, T. J. Whaley, and C. L. Gibb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3, No.4, pp.463-474, 1995.

[29] S. P. Robbins and T. Judge, *Essentials of Organizational Behavior,* Boston: Pearson, 2014.

[30] S. L. Robinson, "Trust and Breach of the Psychological Contrac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41, No.4, pp.574-599, 1996.

[31] C. Routledge, B. Ostafin, J. Juhl, C. Sedikides, C. Cathey, and J. Liao, "Adjusting to death: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and self-esteem on psychological well-being, growth motivation, and maladapt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9, No.6, pp.897-916, 2010.

[32] C. Routledge, B. Ostafin, J. Juhl, C. Sedikides, C. Cathey, and J. Liao, "Adjusting to death: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and self-esteem on psychological well-being, growth motivation, and maladapt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9, No.6, pp.897-916, 2010.

[33]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1081, 1989.

[34] C. D. Ryff and C. L. M.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No.4, pp.719-727, 1995.

[35] D. T. Shek,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A pioneer study in a Chinese contex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158, No.1, pp.113-128, 1997.

[36] D. T. Shek, "The relation of family functioning to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158, No.4, pp.467-479, 1997.

[37] S. Valenzuela, N. Park, and K. F. Kee,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4, No.4, pp.875-901, 2009.

[38] B. Van den Hooff and M. Huysman, "Managing knowledge sharing: Emergent and engineering approaches," Information & management, Vol.46, No.1, pp.1-8, 2009.

[39] R. Wells, "The effects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on student persistence: Are community colleges more meritocratic?," Community College Review, Vol.36, No.1, pp.25-46, 2008.

[40] A. M. Wood, S. Joseph, and J. Maltby, "Gratitude predicts psychological well-being above the Big Five face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6, No.4, pp.443-447, 2009.

[41] 이의연, *사회적 자본과 조직몰입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된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42] W. Tsai and S. Ghoshal,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1, No.4, pp.464-476, 1998.

[43] R. J. Havighurst,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Vol.9, No.10, pp.3-8, 1980.

[44] 이일현,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2014.

[45]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2015.

[46] Y. Guo, Y. Li, and N. Ito, "Exploring the predicted effect of social networking site use on perceived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7, No.1, pp.52-58, 2014.

[47] P. S. Adler and S. W. Kwon,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7, No.1, pp.17-40, 2002.

[48] 강성춘, 배종훈, "What Is and Is Not Social Capital?," 인사조직연구, Vol.15, No.3, pp.225-252, 2007.

[49] 김천기, "중등학생의 중퇴 방지를 위한 사회 자본론적 접근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Vol.14, No.3, pp.21-39, 2004.

저 자 소 개

유 민(Min Liu) 정회원

- 2013년 6월 : 상해해양대학교 경영학(경영학사)
- 2016년 6월 : 상해해양대학교 경영학(경영학석사)
- 2016년 7월 ~ 현재 : 계림의과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2018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인적자원개발, 조직행동, 의료마케팅

이 의 연(Yi-Ran Li) 정회원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문학사)
- 2016년 2월 : 단국대학교 경영학(경영학석사)
- 2019년 2월 : 단국대학교 경영학(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산업 및 조직심리, 사회심리, 리더십, 인적자원개발/관리, 사회적 자본 구축문제, 윤리경영

전 정 호(Jeong-Ho Jeon) 정회원

- 2009년 8월 : 미네소타대학교(철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인적자원개발, 역량평가, 사회적 자본 구축의 문제

이 종 민(Jong-Min Lee) 정회원

- 2009년 2월 : 단국대학교 경영학(경영학사)
- 2012년 2월 : 단국대학교 경영학(경영학석사)
- 2016년 2월 : 단국대학교 경영학(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조직행동, 노사관계, 리더십